

전남도, 생계 취약 청년층에도 ‘농식품 바우처’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서 34세 이하로 확대

임산물도 품목 추가…4인 가구 월 10만원 지원

전남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제공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 정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됐으며,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 및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점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올해부터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l@gwangnam.co.kr



갈색거저리 오일 부산물

미용·식품 소재로 재탄생

전남농업기술원이 그동안 버려지던 갈색거저리 가공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압착 가공 과정에서 발생해 활용처를 찾지 못했던 오일이 미용과 식품 분야에서 모두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곤충자원 활용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4일 유용곤충인 갈색거저리의 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에 대해 항염·항균 기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미용 및 식품 소재로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별도의 화학적 추출이나 추가 공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가공 단계에서 폐기되던 부산물을 그대로 지원회색거저리 압착 오일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항염증과 미백 기능은 물론, 피부 상재균과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활성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다.

항 특성 분석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났다. 압착 오일의 향을 참기름·들기름·올리브유 등 기존 식물성 오일과 비교한 결과, 이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향 패턴을 보였다. 이는 미용제품이나 식품에 적 용할 때 관능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갈색거저리 압착 오일을 적용한 오일 미스트와 오일 밤 등 미용제품을 개발했으며, 동시에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를 제작해 식품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성을 확 인했다.

향후에는 화장품·식품 분야 민간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협력을 통해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 공정의 표준화와 소재 등록을 병행해 곤충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임윤지 연구사는 “곤충자원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 개시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운항, 객실, 공항, 정비 임직원들이 14일 인천국제공항

앵글스

광주·전남 12개 제품, ‘혁신제품’ 신규 지정

스위코진광·첨단세라믹 등 10개사…“공공조달시장 본격 진입”

랭크가 이름을 옮겼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성이 높고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발굴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6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수의계약을 비롯 혁신장터 등록, 시범구매사업, 공공기관 대상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김우한 광주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역 혁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한)은 14일 2025년 제5차 혁신제품으로 광주·전남지역의 12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제품은 총 10개사 12개 제품이다. 광주가 화염차단구조로 난연성능을 강화한 실내벽체마감페인(대명 인터내셔널), 초경량 저선량 포터블 엑스선 촬영 장치(주식회사 오토), 전력선통신 기술과 IoT가 융합된 터널시선유도등(민기사 이언스 주식회사) 등 3개 제품이다.

전남에서는 주식회사스위코진광(차단 응답기능 향상형 지중 EPOXY 부하개폐

기·단로기 내장형 복합절연 ECO 부하개폐기)과 쥐첨단세라믹(내마모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석탄 이송 설비용 세라믹 보강판·배연탈황설비용 슬러리 공급 노즐)이 각각 2개 제품 선정됐으며 코트그린농업회사법인의 천연물복합소재 다

중코팅 완효성 비료(헬로그린), 주식회사 플라버의 융복합시트형탄성포장재, 주식회사 이에스의 기름·승강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갖는 GIS기반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쭈이지시스템의 소화탄 발사기, 은우산업의 글곡판재를 적용한 내진형 물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 서둘러야”

광주상의, 총리실 등 건의문 전달

광주상공회의소는 14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윤의준 초대 총장 사임 이후 현재까지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 지면서 대학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리더십 공백이 에너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중장기 비전 수립은 물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조속한 총장 선임을 통해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